



국제 section

2009년 07월 09일 (목) 22:11

홈 > 국제 > 외교가동정

- 글로벌이슈
- 글로벌브리핑
- 기업저널
- 대사관동정
- 비즈피플
- 네티즌뉴스
- 프린터
- 핫라인
- NGO
- 프로젝트
- 외교가동정

일본 人口自然口學研究 코마츠 아키오 이사장

진정한 동북아의 평화질서와 세계평화는 무엇일까 ?

外 通商部 社團法人 際外 安保령이 일본의 人 自然 學研究 코마츠 아키오 이사장에게, 東北亞및 世 平和에 대한 解法 및 理想的인 韓. 關係등에 대해 조만간 講을 要請할 방침이다.

9일 포럼 관계자에 따르면, 코마츠 아키오 이사장의 방한 기간중, 兩團體간의 正 Giorgio류 및 아키오 이사장과 際外 安保포럼과의 國內에서의 連 見등을 논의 한다는 것.

한편, 코마츠 아키오 이사장은 일본 시마네 縣에서 '코마츠 전기(주)'를 창업한 기업인으로, 그동안 경영인들의 나눔과 社會奉仕의 哲學을 통해, 세계평화(世 平和)를 主張해온 知韓派 人이다.

또 그는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존중하고 신봉하는 몇 안되는 日本 知識/들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The INTL Forum for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a Korea-based corporated body authorized b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Trade announced July 9 that they plan to offer an opportunity for Mr. Komatsu Akio, the Director of Human.Nature & Science Institute to give a special lecture in Seoul, which focusing on 'how to get the peace of the Far East and even world peace'.

According to the person concerned, Forum will deeply discuss about the ideal rel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and all the process of regular exchange of bilateral parties during Akio's staying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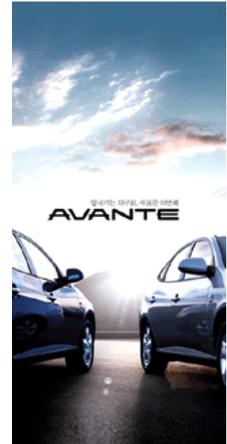
"Besides, we will consider a joint-press conference with him in Seoul for domestic as well as local reporters" They added.

Meanwhile, Mr. Komatsu Akio was a founder of Komatsu Electric Corp in Japan, and he's comparatively well-known in Korea because of his philosophy on 'World Peace' with **share** and **social service**-based.

국제부 이명근 기자/外 部 出入記者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 Line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회사소개 : 정기간행물 등록증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제휴안내 : 광고안내 : 자문위원단

Copyright(c) 2002~2008 (주)일간대한뉴스/다이나믹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모회사 : 서울 중구 예장동 8-44 일간대한뉴스 /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888@hanmail.net

등록번호 : 문화가00164호[등록일 1996년 12월 4일] / (edit/publicaion) kim sung je

지회사 : 서울시 중구 필동2가 86-3 (근아인쇄) Tel: 02)3789-9114 Fax: 02)778-6996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등록일 2008/7/10 (edit/publicaion) kim nam gu

대한뉴스에 게재된 콘텐츠의 무단 전재/복사/배포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